

CGMMV 즙액전염 및 토양전염 억제용 신개발 방제제 사용

1.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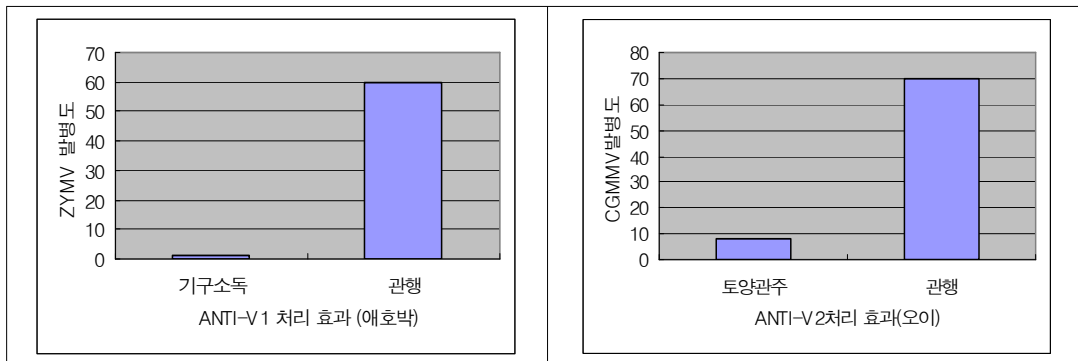
- '98년 박과(참박, 호박)종자에서 CGMMV 감염피해 대규모 발생(463ha)
- '99년 규제 비 검역병해충으로 지정 고시('99.10.25) 종합방제대책 추진하고 있으나, CGMMV의 발생 및 피해면적이 '03년도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박과작물에서 발생 재증가 추세
 - 면적(ha) : ('98)463 → ('02)116 → ('03)14 → ('04)29 → ('05)76
 - 발생농가(호) : ('98)1,039 → ('02)359 → ('03)73 → ('04)108 → ('05)321
- 그 간 농림부의 대책으로 재배포장·육묘장의 발생예찰, 교육·홍보 및 종자검역 강화에 역점적으로 노력하였으나, 적극적 방제대책 (즙액전염 차단 및 토양내 바이러스 방제기술 등) 미흡이 CGMMV 재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.

2. 현행제도(현행정책)

- 농림부의 「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종합방제대책」 시행에 있어, 지금까지 바이러스 방제용 대체 농자재 개발부족으로 효율적 방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됨.

3. 주요연구결과

- 신개발 바이러스 감염억제용 시제품 2종(ANTI-1 및 ANTI-2)의 과채류 바이러스 즙액 전염 및 토양전염 억제효과



- 즙액전염성 바이러스 전염억제제 (ANTI-V1)
 - 접목, 육묘, 정식, 재배 기간 중 관리 및 수확 작업시 오염된 농기구 및 작업자 손소독
 - 방제효과 : 98.6%이상
- 토양전염성 바이러스방제제 (ANTI-V2)
 - 연작으로 인한 토양내 잔존 바이러스 (1차 전염원)에 의한 2차 전염 억제
 - 방제효과 : 88.5%이상

4. 기대효과

- 과채류 시설 재배농가 바이러스 피해 경감(년 100억원 이상) 효과

5. 건 의

- 건의부처 :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과
- 개선 또는 제정해 주어야 할 사항
 - CGMMV 즙액전염 및 토양전염 억제용 신개발 방제제 사용 권장
 - 오이 등 박과류 재배시 바이러스의 즙액전염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억제(기존의 skim milk 보다 방제효과우수)
 - 토양내 잔존 CGMMV에 의한 2차 감염을 토양소독으로 차단 (세계 최초 신기술)